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에 연료가 고갈되어 끊어지면 차는 멈추어 기능발휘를 못 하듯이, 날이 가물어 곡식에 물이 끊어지면 곡식은 말라 성장치 못 하고 죽게 되듯이 이처럼 모든 것에 주된 연료 에너지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빠지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죽어버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사랑이 에너지이고, 기쁨이며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주된 에너지이며 기쁨인 것을 진정 알고 깨달아 성삼위 하나님과 선생님 앞에 기도와 사랑으로 힘을 드리며 영광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함께 하기 전에는 자신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한 무소부재한 존재이시지만, 사랑하는 삼위의 근본체인 우리가 진정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열렬히 사랑해 드릴 때 가슴 한 칸이 뻥 뚫리듯이 사랑의 기쁨이 솟고, 온 천하를 얻은 자보다 더 기뻐하시며 진정 삶의 보람과 맛을 느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고한 세월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기다림 속에 이룬 이 귀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저 수동적인 낮은 차원의 사랑이 아닌 능동적인 사랑,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급 차원의 사랑, 마음이 설레이는 더 귀한 사랑으로 오늘도 매순간마다 사랑의 귀한 제단을 쌓으며 영광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서는 설레이며 기뻐하시는 삼위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더욱 더 삼위를 최대한 사랑해 드리기 위해 삼위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에 가득 담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삼위의 사랑에 도전하시며 차원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와 가장 맞닿은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셨으며, 삼위와 온전한 일체를 이루시어 우리들 또한 그 급까지 끌어 올리는 휴거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우리도 영혼으로 깊이 깨달아 온전히 받게 하시며, 그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여 삼위를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니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를 향한 사랑을 매일 사랑을 할 수 있는 최고치로 끌어 올려 삼위께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삼위께서는 기름이 떨어져 멈추어 버린 차와 같고, 멈추어 버린 시계와 같이 사랑에 메말라 멈추어 있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 말씀과 진리로 뜨겁게 삼위를 사랑함에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의 조건을 더 빛나게 쌓아 올라가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사랑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한 용기와 사랑의 믿음 그리고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말없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희생과 사랑으로 조건을 세워 주시는 선생님께도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연료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생님께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사랑인 것을 진정 깨닫습니다. 삼위의 대상체가 되셔서 그 온전하신 삼위의 육이 되신 선생님이시기에 삼위와 삶의 마음의 본질이 같이 일체되신 만큼 그의 모든 삶도 사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저희가 우리의 짧은 지식과 낮은 차원의 생각으로 깨닫고, 그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를 깨닫고, 삼위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그를 사랑해 드리어 그 분께서 우리의 애뜻하며 간절한 사랑을 뜨겁게 받으시고, 더 높이 성약역사의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시며, 더 깊이 성자의 말씀을 받으시어 힘있게 이 모든 천년의 역사를 찬란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더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는 시대 구원자로서의 사랑, 시대 땅의 입장에서 신랑적 사랑, 삼위 앞에 신부적 사랑, 많은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는 선생 입장의 사랑, 때로는 친구가 없어 외로워 하는 자들에게는 친구적 사랑, 부모가 없어 힘들어 하는 자에게는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영혼으로 깊이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뭉치고 뭉쳐, 사랑이 모이고 모여, 그분의 삶이 만들어졌기에 우리 또한 그 분을 향한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에게 힘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100% 순금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선생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삼위를 닮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숭고하며 값진 것인지 더 높은 차원으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삼위와 선생님으로 꼭 채워 진실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니 이 우주를 넘는 큰 사랑을 가지신 삼위와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전히 우리도 받아 100선, 200선, 300선의 휴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두 증인 가운데도 사랑의 힘으로 더 큰 능력의 역사를 펼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삼위께 영광돌리오며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